

# 이슬람의 진리

**Dr Abdul wahab Zahid**

압둘 와합 자히드 박사

전주 이슬람 성원 이맘

BISMILLA HIRRAHMAN IRRAHIM

비쓰밀라 - 히르라흐마 - 니르라힘

In the name of Allah, Most Gracious, Most Merciful.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 1.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시한 이슬람

## 2. 이슬람의 의미

- ① 천사들의 존재를 믿는 것
- ② 진 :
- ③ 경전에 대한 믿음
- ④ 하나님의 사도와 선지자들
  - ♣ 선지자와 사도의 차이
- ⑤ 최후의 심판

## 3. 이슬람의 기둥(교리)

## 4. 이슬람의 가르침

- ① 종교에는 강요가 없다.
- ② 모든 인간의 존엄성
- ③ 어른에 대한 공경과 부모에 대한 효도
- ④ 이슬람과 사회
- ⑤ 이슬람은 공정한 종교이다.
- ⑥ 이슬람은 평등한 종교이다.
- ⑦ 차별 없는 이슬람
- ⑧ 이슬람 지도자들의 율법
- ⑨ 신앙의 진실 된 충고
- ⑩ 백성과 지도자간의 차별 없는 평등
  - ♣ 하나님의 사도들은 왜 일부다처였는가.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한한 찬미를 드리며 그분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그분은 어떠한 동반자도 두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분이며, 사도 무함만은 하느님의 종으로서 마지막 사도임을 우리는 증언합니다.

전주성원에 있는 동안 몇 권의 책을 썼지만 이 책이 완성될 때까지 진심으로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전주 무슬림에게 항상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 책은 무슬림과 비무슬림 모두에게 올바른 이슬람 길잡이로서, 이슬람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처음으로 이슬람을 접하는 분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으며, 이슬람 대한 진실과 교리를 좀 더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부분별로 제목을 넣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무슬림 형제들 ( , , , 카올라 이정순님, ) , 하나님의 은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형제, !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슬람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고 생활의 지침서가 되길 기원합니다.

**Dr Abdul wahab Zahid**  
압둘 와합 자히드 박사  
전주 이슬람 성원 이맘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한한 찬미를 드리며 그 분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그분은 어떠한 동반자도 두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분이며, 사도 무함마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지막 사도임을  
우리는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 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추구하는 자 결코 수락되지 않을 것이니  
내세에 패망한자 가운데 있게 되리라.] 이므란장 85 !

## 1.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시한 이슬람

형제자매 여러분! 이 위대한 종교가 전파된 역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종교의 창시자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슬람교는 특정 부족이나 민족, 혹은 어느 특정인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진실로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탄생되었다. 그분은 진실로 시작과 끝이 없고, 최초의 분으로서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며,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고, 별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위치에 운행하고 존재하도록 정립하신 분이시며, 우리 인간들에게 탄생과 동시에 삶을 부여하는 위대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 분의 존재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분의 존재를 증명하며 그분이 계신 것을 뒷받침해 준다. 그 분은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으로부터 하와( )를 창조하셔서 두사람으로부터 인간들이 태어나게 하셨으며 인간에게 삶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

이슬람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이다.

꾸란에 언급하기를 [ !일 그대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태양과 달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라고 그들에게 묻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라고 말하리라] 25 !

유일성 즉 그분은 유일하신 주님으로 동반자나 자녀나 부인을 두지 않으시고, 그분과 대등하게 비교하거나 비슷한 것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 유일하신 분이시며, 즉 남성이나 여성과 같은 성별이 없는 분이시다.

그 분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닌, 최초의 분으로서 최후까지 존재하는 분이시며, 그 분에게는 시작과 끝이 없고 죽음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것으로도 해하거나 없앨 수 없는 분이시다. 그 분은 모든 것을 듣고 볼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분이시다. ,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며 어떤 비밀도 그분이 감춰질 수 없다. 그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에 의해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그 분은 각 민족들 중에서 예언자와 사도들을 선택하셔서 인간들이 그들을 통해 교육을 받고 하나님께 인도받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도와 예언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분들은 노아, 아브라함, , 예수 그리고 마지

막 사도인 무함만( 이분들 모두에게 평화가 있으시길)

위대하신 하나님 바로 그 분께서는 인간들에게 그분의 규범과 이슬람을 내리셨으며, 그 이외의 어떠한 종교나 규범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꾸란에서 다음 구절로 명확히 규명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추구하는 자 결코 수락되지 않을 것이니 내세에서 패망자 가운데 있게 되리라] 이브란장 85 !

이슬람 이외 다른 종교를 믿는 자는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그 후 최후 심판일에 징벌자들에게 속하게 될 벌을 받는 것이다.

이슬람의 발생시기는 역사적으로 인간의 역사와 같은 시기였다. 모든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아담의 자손들이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슬람을 전파하고 이슬람으로 인도하도록 그들을 선교사로서 그리고 인도자로서 선택하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에 관하여 꾸란에 언급하고 있으며, 그들의 숫자는 매우 많으나 대표적인 분들을 다시 언급하면, , , 모세, , 그리고 마지막 사도 무함만( 이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으시길)

## 2. 이슬람의 의미

이슬람의 의미는 지고하신 하나님께 완벽하게 복종하고 귀의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평화와 안녕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속성 중의 하나인 평화에서 나온 뜻이다.

이슬람은 모든 인간들을 위한 평화의 종교로서, 결코 피조물인 한 인간에 의해서 생겨난 종교가 아니며, 무함만은 하나님의 최후의 사도이자 예언자로서 그분 이전의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던 것처럼 그 분께도 이슬람을 가르치고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졌던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로 정하고 창조 작업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많은 인간들 사회 즉, 국가간 혹은 국내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규범과 원칙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정한 규율을 만드신 것이다. 아담 이후에 많은 인간들이 태어나므로 과연 누가 이들에게 이 규칙을 알리고 가르치며 지킬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그분이 만드신 규율을 인간들에게 가르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아담 이후 많은 사도와 선지자들을 시대별,

부족별, 나라별로 선택하여 계시를 내려 주신 것이다.

예를 들면, 현대 사회에서 처음 아기가 태어나 성장하면서, 부모나 선생님께서 한 가지씩 배움을 통하여 법을 깨우치고 존중하며 지켜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이치로 넓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존하는 많은 종교는 단 하나의 종교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한 분이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정하신 대로 실행되었다면 시대에 따라 사도들만 바뀔 뿐 종교 자체는 바뀔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많은 종교와 교파가 존재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후세에 몇몇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이를 다르게 해석하여 각기 다른 교리( ) : 적용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진실이므로 우리는 이점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꾸란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종교의 역사성을 잘 인식하여 올바른 교리를 잘 선택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 ① 천사들의 존재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천사들의 숫자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우리는 여기서 천사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철학적 논쟁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물질의 감춰진 배경을 부정하는 사람도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직접 체험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많은 일들을 믿으며 그 존재를 믿고 느끼며, 진실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자취를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그것의 존재가 증명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살면서 많은 것들이 명확히 존재하는 것을 믿고 주장하면서도 그 존재를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것들이 있다. , 이성, 공기 등과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천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이다. 많은 종교와 경전들이 그 존재에 관하여 증명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창조하시고, 그들은 물질적으로 느껴지는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 꾸란에 언급하기를 [ :대의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나는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하였노라 진실로 나는 지상에서 그를 대리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빛으로 창조했다고 밝히셨다. 그들은 청결한 빛의 몸에 영혼이 존재하며 남성과 여성의 성별 구분이 없다. 그



들은 먹거나 마시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행하신 대로 창조한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 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전달자로 정하였으며, 그들은 한 개나 두 개 또는 세 개나 네 개의 날개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이 원하신 대로 천사들을 창조하셨으며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들은 선택의 의지나 이성이 없으며 그들의 행동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정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주저함이나 불평없이 행하며, 그들은 잘못을 행하지 않고 망각이나 거역 또한 하지 않는다.

이맘 무슬림이 그의 하디스에서 아이사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 하나님의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사는 빛으로 창조되었으며 아담은 그대들에게 언급했던 것처럼 창조되었다]

또한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천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다. [ 들은 매우 청결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종복들 중에서 선택한 사람에게 계시를 내려 보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경고하도록 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많은 일들을 하도록 명령하셨고 그중 하나는 그를 통해 많은 경전과 계시를 내려 보내 모든 사도들에게 조금도 빠짐없이 전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다음 구절과 같이 천사들을 성령이라 불리운다. [ 하라 그대들이 믿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대 주님으로부터 성령( 가브리엘 천사) 를 통해 진리를 내렸도다] , 하나님의 말씀인 꾸란을 성령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내려 보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보내신 최초의 계시는 [ 어라 만물을 창조하신 그대 주님의 이름으로 읽어라 그 분은 인간을 한 방울의 응혈로 창조하셨나니 읽어라 그대 주님은 가장 은혜로우신 분이며 지식을 가르쳐 주신 분이시다]

## ② 진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사도들에게 계시된 경전과 메시지에서 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꾸란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는 진과 인간을 오로지 나를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창조하였느니라] 그리고 진의 정체에 관하여 설명하시기를, [ 란 불꽃처럼 아주 뜨거운 불로 진을 창조하였다] [ ( )

는 진을 매우 뜨거운 불에서 퍼져 나오는 열기로 창조하였다] 라고 언급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진들의 육체를 불길 속의 불꽃으로 창조하셨으며, 우리는 진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거나, 보거나 또는 손으로 만질 수 없다. 그들의 몸은 우리와 같은 물질적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들은 인간에게 감춰진 자식을 알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지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으로 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진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같으며, 그 이유를 꾸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다. [ 나는 진과 인간을 오로지 나를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창조하였느니라] , 진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진실된 일을 하는 진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리는 진들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꾸란의 “ ” 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 ) 가 내려 졌고 한 무리의 진이 그것을 듣고 말하기를 진실로 우리는

매우 훌륭한 낭송( ) : 듣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니 그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에게 어떠한 동반자도 두지 않으며 그 분은 부인이나 자녀가 없으신 가장 위대한 우리의 주님이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우매한 자들이 있어 하나님께 거역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이블리스( ) | 게 아담에게 절을 하도록 명령하였지만, ( ) :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만과 자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대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국에서 추방하게 되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부터 버림받은 사탄인 것이다.

사탄이란 말의 어원은 아랍어인 “ ”, “ ” 라는 동사에서 비롯되었고,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멀어짐을 의미하며, 또한 매우 불결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형상이나 본질이 매우 추악한 것을 통칭한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따르는 무리가 인간이든 진이든 그들에게 매우 노하셨으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 ) | 말이 실현되리니 진실로 진들과 사람들로 지옥을 채울지니라] , 사탄을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내려지던 당시에 생존하고 있는 믿는 자들에 의하여 사도 무함만의 지도하에 완성되었다. 꾸란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적으로서 어떤 인간도 꾸란과 비슷한 경전을 만들 수 없다.

#### ④ 하나님의 사도와 선지자들

이슬람은 아담 이후의 자손들, 모든 인류를 위한 종교이다. 하나님께서 꾸란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언급하셨다. [·브라함은 유대교인도 기독교인도 아니었으며 그는 오로지 진실된 무슬림이었다] 이프란장 67 , , [·님께서 내게로 귀의하라고 말씀하사 나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 귀의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종교를 따르라 이르며 말하기를, 오 나의 자손들이여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위하여 종교를 선택하셨나니 그 안에서 그대들은 무슬림으로 생애를 마쳐야 하니라] 131-132 !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의 자손들에게 유언한 것을 꾸란에서 언급하시기를 [·곱이 죽음에 이를 때 너희가 지켜보고 있었나니 야곱이 그의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내 다음에 너희는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

라고 말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신이며 당신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스마일 그리고 이삭의 신인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며 우리는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라 대답하더라] 133 !

#### ♣ 선지자와 사도의 차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영적인 계시를 내리셨다.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이전시대와 동시대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래서 선지자는 사도의 추종자이며 그들은 사도와 같은 시대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 하룬이 하나님의 사도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다. 따라서 선지자 하룬은 하나님의 사도 모세의 추종자이자 조력가가 되었으며 사도의 명령과 가르침을 적용하는 일을 맡았던 것이다. 그리고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계시를 받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성서와 계시문을 내려 보내 인간들에게 알리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도는 선지자이지만, 모든 선지자가 사도는 아니다.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위임받아 인간에게 전달하는 분이다. 따라서 전달자의 일을 맡은 사람이거나, 예언의 일을 맡은 사람이거나, 또는 선교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일을 맡은 분이다.

사도의 일을 맡은 사람 즉, 선지자는 합법적인 용어의 의미에 따르면 사도가 아니다. , 그들은 인간의 전달자이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우편 배달부와 같이 인간으로부터 그들과 같은 인간의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맡은 전령사라 불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지자에 대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사도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시를 전달 받은 일을 맡기기 위하여 선택하시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성령으로 계시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사도라는 말이 어느 누구에게도 불리지 않는다. 사도들의 예로는, , , ,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인 무함만이 있다.

### ⑤ 최후의 심판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사도와 예언자들에게 내려보낸 성서를 통하여 현세는 반드시 종말이 있으며, 현세 이후 내세에는 종말이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제2 | 삶이 뒤따른다는 것을 밝히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 |세의 삶은 험락과 오락에 불과하나 진실한 삶은 내세의 삶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생활이니라] 64 !

또한, , [ |세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현세에서 큰 복이요 내세에서는 더 큰 복이니라 내세에서의 정의를 위해 사는 이들을 위한 은혜라 대답하리라] 30 !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세를 믿도록 명하셨고 내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매우 큰 벌이 있음을 밝히셨다. ,

[ .러나 하나님은 내세를 믿지 아니한 자를 위해 고통스러운 벌을 준비하였느니라] 10 !

### 3. 이슬람의 기둥(교리)

이슬람의 기둥( ) 5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 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만은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이며
- ②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 ③ 구빈세( ) 를 내며
- ④ 성지순례를 행하고
- ⑤ 라마단 달에 금식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만은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입니다.

무슬림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대목을 잘 인식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 따라서 사하다( ) · 하기 전에 진정으로 이 믿음을 가져야 하고 이후에 사하대를 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무슬림이 될 수 있다.

②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이슬람에 있어서 예배를 통한 경배는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감사와 성스러운 헌신을 드리는 것이다. , 예배와 기도는 중개자가 없이 하나님께 직접 구원을 드리는 행동의 표현인 것이다. 이슬람은 하루 중에 낮과 밤동안 다섯 번의 예배를 의무로 정한다. 예배는 반절과 큰절 등의 형식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다.

③ 구빈세(자카트)를 내며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에서 1%에 한번 2.5% | 돈을 내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으로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안되며, 부유한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슬람 사회에서는 주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의 사이

에 정감의 교류가 있는 것이다.

④ 성지순례를 행하고

카아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 ( |카의 하람 사원) | 인류를 위하여 세워졌나니 이는 축복받는 박카( |재 메카 도시의 옛이름) | 있으며 이는 모든 피조물을 위한 길이라] 96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이 집에서 당신께 기도하며 예배하게 해줄 것을 기도했다. 따라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중 부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일생에 한번 이상 메카에 있는 이곳 카아바를 성지순례 하도록 의무로 정하여져 있다.

⑤ 라마단 달에 금식을 행하는 것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매년 라마단 달이 되면 한달 동안 단식을 행하도록 의무로 정하여져 있다. 단식은 아침에서 저녁까지 행하므로 동이 뜨기 전에 아침 식사와 해가 진후에 저녁 식사는 할 수 있다. ( 40 )

#### 4. 이슬람의 가르침

이슬람에서는 무슬림들 상호간의 거래나 생활에 있어서 신의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으며, 무슬림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므로 사람과 사람사이에 공정과 정의를 행하는 것을 의무로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시어 남성과 여성을 두고 또한 종족과 부족을 두었으며 서로가 서로를 알도록 했기 때문이다.

##### ① 종교에는 강요가 없다.

“ 이란 표현은 이슬람에서 잘못된 말이다. , 모든 인간들은 평등과 자유가 있다. 따라서 종교 선택에도 강요가 아닌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슬람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혹은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한 사람만이 최후의 심판에서 판가를 받고 그에 따른 행복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 교에는 강요가 없나니 진리는 압훤 속으로부터 구별되니라 사탄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 끊기지 않는 단단한 동아줄을 잡았노라 하나님

은 모든 것을 들으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256 !

##### ②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 상에 아무런 해악을 미치지 아니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살해한 것은 모든 백성을 살해한 것과 같으며 또한 한 사람을 구제한 것은 모든 백성을 구제한 것과 같다] 마이다장 32 !

다시 말해서 인간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중요시 할 뿐만 아니라 자살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③ 어른에 대한 공경과 부모에 대한 효도

이슬람의 기본은 무슬림 상호간의 인간관계로서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께서 말씀하시길, “ 린이를 애정으로 보살피지 않고 웃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자들은 이슬람 공동체에는 없느니라.”

또한, “ 이슬람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아무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보다 훌륭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랑과 공경은 이슬람 사회에서 인간관계의 근본이 되며, 어른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이는 어른을 공경하며, 꾸란을 암

기하고 이슬람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의 위치를 인지하여 그들을 공경하고 존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꾸란에서 언급하기를, “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명령하여 부모를 존경하라 했거늘 그의 어머니는 태아를 가짐과 2 !간 젖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허약하여 지느니라 내게 감사하고 그리고 네 부모에게 감사하라” 14 !

어떤 한사람이 사도 무함만께, “ |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 사도 무함만께서 “ .” 라고 하셨다.

다시 사도 무함만께, “ |머니 다음으로 제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 “ |의 어머니이나라.” .

세 번째로 사도 무함만께, “ ! 다음으로 제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 세 번째도 “ .” 라고 말씀하셨다.

네 번째로 사도 무함만께, “ ! 러면 그 다음으로 제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 .” .

꾸란의 계시와 사도 무함만의 말씀처럼 이슬람 공동체는 어머니의 위치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왜냐하

면, 우리가 태아에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는 우리의 첫 번째 스승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처음으로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여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므로 인간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스승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도 무함만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더 큰 뜻은 부모의 사랑이다. 부모는 우리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시므로 우리가 부모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 감사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 중하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함은 하나님과 부모의 은혜인 것이다.

#### ④ 용서와 관용의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를 용서하시는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며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가장 훌륭한 사도 무함만과 그분의 가문과 교우들 모두에게 축복을 내려 주소서. 인내하는 자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을 것이요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자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관용과 사랑을 베푸시며 또한 우리를 지옥 불로부터 구원하시고 해방되게 하시는 분입



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사랑과 관용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와 관용을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자를 용서하고 우리를 박대한 자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 하나님은 무지하여 악을 저지른 죄인들이 회개하고 반성할 때 이들을 받아 주시나니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시노라 실로 하나님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17 !

따라서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용서한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고 그의 실수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어 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피해를 주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보상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그분의 능력으로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하나님은 관용과 권능으로 충만하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전해오는 예언자의 말씀에 의하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일부는 하나님의 관용을 그리고 일부는 하나님의 용서를 노래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 내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 실로 그것들이 인내요 굳은 결심중의 하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43 !

또한 하나님의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 선은 절대 재물을 감소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와 관용으로 영광이 더하여지매 감소한 자는 하나님의 들어올림을 받습니다.” 하디스 「 uslim, Ahmad and at-Tirmizi 」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 하나님은 천국에 문을 두셨는데 이 문은 박해진 자를 용서한 자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 hmad 」

아부 후라이라는 예언자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 |언자와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아부 바크르를 혈뜬고 있는 사람을 보고 예언자는 놀라면서 미소를 띄었습니다. 비난의 정도가 지나치자 아부 바크르가 그의 몇 가지 말에 대꾸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언자께서 화를 내시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아부 바크르가 예언자를 뒤따라가며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여, 그가 저를 지나치게 혈뜬자 제가 그의 몇 가지 말에 대꾸했을 때 당신은 화를 내시며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러자 예언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천사가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당신의 대꾸를 차단시키려 했소. 당신이 그의 몇 가지 말에 대꾸를 했을 때 사탄이 개입하였는데 내가 사탄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단 말이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부바크르! 네 가지 바른 일이 있으니 박해 받은 신앙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상하여 승리하게 할 것이요 사원을 세워 그것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신앙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나 물질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문을 열었다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상을 더욱 적게 주실 것입니다.” 하디스 「Imad and Abu Dawood」 하디스 「Tabrani」

또한, 아부 후라이라는 예언자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활의 날 호출을 받게 되나 하나님을 위하여 베풀지 않았던 자는 어느 누구도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 하나님께서 홀로 찬양받으소서. 저희는 베풀었습니다. 라고 하자 다음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세에서 살고 있을 때 잘못했음에도 그를 용서한 자를 말하니라.” 「Baihaqi」

#### 예언자께서 적을 용서한 훌륭한 사례들

아부 후라이라는 예언자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언자께서 나지드 지역으로 말 한 마리를 보냈더니 바누 후네이파 부족

출신의 싸마마(ibn Atha) ᄇ 말을 타고 와서 말고삐를 사원 한기둥에 매었다. 이때 예언자가 그에게 가서 무슨 소식을 가지고 왔느냐고 물었더니 좋은 소식을 갖고 왔다고 하면서, ‘신이 나를 살해하면 당신도 살해당할 것이요 당신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준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재물을 원한다면 요구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예언자는 다음날 다시 그에게 무슨 소식을 갖고 왔느냐고 물었다. 그는 어제와 같은 대답으로, ‘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감사할 것이요. 당신이 나를 살해하면 당신도 살해될 것입니다. 재물을 원한다면 요구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원 근처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더니 몸을 닦고 사원으로 들어가 신앙고백을 하였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무함만은 그분의 종이자 사도임을 선서합니다. 하나님께 맹세컨대, 나는 당신의 얼굴이 가장 싫었지만 이제 당신의 얼굴이 제일 좋습니다. 나는 당신의 나라가 가장 싫었지만 이제 당신의 나라가 제일 좋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말 한 마리가 저를 이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소순례를 하고 싶은데 당신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무함마께서 기뻐하시며 소순례를 허락하자 그는 메카로 돌아왔다. 이때 메카의 한 불신자가 그를 조롱했다. “ ?” 이에 그가 대답했다. “ . 하나님의 사도를 따라 이슬람으로 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맹세코 밀 한알의 양식도 예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양식입니다.” 『bukhari and Muslim』

또한, 예언자의 전기에도 하나님의 사도께서 그분을 박해한 타이프 주민들을 비롯하여 메카 및 메디나 사람들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사건들이 수없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 .들로 하여금 관용을 베풀도록 하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원하지 아니 하느뇨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22 !

주여,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자선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당신께서 좋아하시고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⑤ 이슬람과 사회

사회생활은 사회 각 구성원간의

건전한 인간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어떤 일을 수행하든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 각 개인은 그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접촉하게 된다. 즉 사회생활에는 항상 다른 사람을 만나고 접하게 된다. 따라서 각 개인은 다른 구성원과의 대화나 접촉, 그리고 거래하는 방법을 알아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 접촉과 만남이 많이 이루어지는 집이나 직장, 혹은 사회의 어떠한 장소에서든 타인과 접촉하게 되므로 대화를 나누는 방법과 거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도께서는 이에 관하여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길,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옳은 말은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침묵을 지켜라. 훌륭한 교재와 원만한 대인관계와 부드러운 말은 사회를 더욱 건전하게 할뿐만 아니라, 사회 각 구성원간에 유대를 강화하고 촉진시켜 주는 것이다.

개인간에 맺는 우정과 형제애, 그리고 사회 구성원간의 상호 유대관계는 그 사회를 튼튼하게 하고 건전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내세를 믿는 자라면 당신의 집을 찾아온 손님을 환대하고 완전한 신앙심으로 그에게 선행하고 당신의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

⑥ 이슬람은 공정한 종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로 하나님께서는 공정함과 선행을 베풀고 어려운 형제들에게 자선을 베풀도록 명령하셨으며 추악한 행동과 불결한 욕망을 추구하는 행동이나 불신적인 행동을 금하셨다] 나 홀장 90 !

공정은 그 의도나 추구하는 목적 면에서 평등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 이슬람에 있어서 평등은 바로 공평함을 의미한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공정하도록 명령하셨으며 무슬림들은 어렸을 적부터 이를 실천하였다. 무슬림 법학자들은 굳이 공정한 것이 어떤 것인지 언급하려 노력하지는 않았지만 말과 행동으로 그것의 예를 보여줬다.

믿는 자들의 지도자인 오마르 이븐 알아지즈가 그 당시 법률학자 중 한사람인 이븐 카압에게 공정한 통치를 하도록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서신내용에 언급하기를, “ . 이븐 카압이여 공정함을 지키시오.” 라고 써어 있었다. 이븐 카압이 말하기를, “ |가 그에게 선행에 관하여 질문하니 그는 어린 무슬림들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나이 든 무슬림들에게는 아들이 되고 동련배 무슬림들에게는 형제가 되시오. 그 외의 사

람들은 그들의 연령에 따라 대하시오. 결코 화난다고 해서 채찍질을 하지 마시오. 만약 그리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이 있을 것이오.” 라고 말했다.

이슬람은 공정함을 의무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에 감화받도록 하였다. 또한 이슬람은 굳이 공정함이 어떠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대하고 실천하므로써 최상의 행복과 유익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신들이 말할 때 비록 미천한 사람들일지라도 공정하게 말할지어다] 라고 하셨다. 152 !

이와 같이, 이슬람은 각 개개인에게 물질적인 측면에서 차별을 두지 않으며 모두가 평등하다.

⑦ 이슬람은 평등한 종교이다.

인간은 누구나 신체적인 면 또는 기술적인 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평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안해도 서로 평등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은 평등하게 소중하다는 것이다. 이븐 카압의 공정함에 관한 표현은 환경이 다른 많은 나라의 사람들 사이에서 선행

을 하고 상을 주고 벌을 집행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공정함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제1 | 이슬람 지도자인 아부 바크르께서 그의 재위 2 !째에 메카에 간 일이 있었다. 그리고 메카시청 가까운 곳에 앉아 말하기를, “ : 시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가?” . 당시 아부 바크르와 제2 | 이슬람 지도자인 오마르, 그리고 이슬람지도자들과 무슬림 지도자인 오마르, 그리고 이슬람지도자들과 무슬림 법학자들은 가장 올바른 판결은 하나님에게 비롯되며,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며 지도자와 목동과 같은 평민들 중 그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평등함이어야 함을 이해하고 있었다.

### ⑧ 차별 없는 이슬람

이슬람에서는 무슬림과 이집트 원주민 그리고 유대인이나 그 외 다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과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결코 타종교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각각의 권리를 존중한다.

제2 | 이슬람 지도자인 오마르가 이집트 총독의 아들이 기독교인 원

주민에게 잘못된 것에 대한 처벌을 내린 것은 이슬람의 공정성을 입증하는 하가지 예다.

이집트 총독 아므르의 주도하에 그의 아들, 그리고 여러 명의 이집트인들이 말을 타고 경주를 했다. 이슬람에서는 신체를 건강하고 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운동을 하도록 의무화했고, 이슬람에서는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이 경주에서 기독교인인 이집트 원주민이 일등을 했다. 그리고 총독의 아들은 이등을 했다. 총독의 아들은 그가 기독교인인지 이집트 원주민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 젊은이( ) 를 살짝 치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 : 독의 아들인 나를 제치고 그대가 일등을 해?” 그러자 기독교인 젊은이는 마음이 몹시 상해서 집을 돌아와 그의 아버지에게 그 일에 대해서 말했다. 기독교인 젊은이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 !실로 이슬람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슬람은 로마 기독교 시대의 억압과 박해를 없애고 이슬람에 의해서 공정하고 평등한 종교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들과 같이 오마르를 만나기 위해 메디나( : 시이름) . 두달이 넘는 길고 긴 여행을 떠난 이슬람

의 지도자 오마르를 만나 이집트 총독의 아들이 했던 행동을 말하자, 오마르는 편지를 보내 아므르와 그의 아들을 소환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오마르는 판결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오마르가 기독교 원주민에게 말하기를, “:독의 아들을 당신이 맞았던 것처럼 때려라!” 오마르는 양측으로부터 모든 것을 듣고 올바른 판결을 기독교인과 이집트 원주민에게 내렸던 것이다.

그리고 아므르에게 말하기를, “:제 사람들에게 헌신할 것인가? 그들의 어머니가 그들을 자유롭게 낳았다.”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상태로 태어나며 모든 차별로부터 평등하고 공정하며 자유로운 권리가 있다. 이슬람은 정의 앞에서 종교 또는 사상 때문에 차별을 두지 않고 오로지 공정하게 판단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상받을 권리가 있고 피해를 준 사람은 보상해 줄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이슬람은 종파를 떠나서 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른 예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방황했다. 다음의 이야기는 그 당시 매우 유명한 이야기이다. 어느날 오마르가 시장에서 유대인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이 오마르에게 온정을 요청하자 그

에게 말하기를 “:인장 그대는 누구 입니까?” , “:나는 유대인 노인입니다. 복지혜택과 부양을 요청합니다.”

오마르가 그에게 말하기를, “:인장! 우리는 그대에게 공정하게 대합니다. 그대가 젊었을 때 복지세를 받았고 이제 당신이 늙었으니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음식을 그 노인에게 주었다. 그리고 복지부로 보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것이 바로 오마르와 다른 지도자들에게 진실된 인간적 종교를 가르쳤던 이슬람이다. 이슬람은 자비와 정의로써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공정하게 포용하였으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마르와 사도 무함만의 교우들에게 원하신 길이다.

#### ⑨ 이슬람 지도자들의 율법

다음은 제1 | 이슬람 지도자 아부 바크르가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이다.

[ :람들이여 진실로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만약 내가 덕행을 베푼다면 그대들이 나를 도와주고, , 내가 악행을 행한다면 나를 벌하시오. 신의는 약속이고 거짓은 위반이며 그대들

중 억압받는 자는 나와 같이 강해져서 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그대들 중 타인을 억압하는 자는 내가 그로부터 불공정한 권리를 빼앗을 것이다.]

### ⑩ 신앙의 진실 된 충고

하나님의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 .” 우리가 묻기를 “ .” 라고 하자, , “ 나님과 그분의 성서와 그분의 선지자와 무슬림 지도자들과 그들의 공동체를 위해서니라.”

이와 같이 이슬람에서 지도자는 항상 학자의 조언과 충고를 받는 것이 현실화되어 있다.

다음 이야기는 이슬람의 지도자 오마르가 이슬람 학자인 자이드 이븐 아미르로부터 조언을 받은 예다. 그가 말하기를, “ ! 나는 그대에게 충고를 하고 싶소.” , “ .”

자이드가 말하길, “ 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오. 그리고 당신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아니 되오. 그대의 좋은 말은 행동이 따라야 하며 어떤 일에도 두가지 판결을 내리지 마시오. 당신의 명령이 모순 될 수 있소. 하나님께

서 그대를 보살펴 주시고 그대의 부하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실 것이오. 그대의 얼굴과 그대의 지도는 항상 먼곳의 무슬림과 가까운 곳의 무슬림들을 염두 해 두시오. 그대 자신이 좋아하고 그대 가족이 좋아하는 것을 그들이 좋아하게 하고 정의를 외면하지 말며, 하나님의 길에서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오마르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교하였다. “ 나는 지도자로 나의 지위를 결코 그대들의 눈을 막고 그대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그대들의 재물을 탐하는데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그대들에게 주님의 경전을 가르치고 그대들의 예언자의 행적을 가르치는데 사용할 것이다. 누구라도 범죄를 저질러 타인에게 해를 입힌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부하가 부대장에 대한 불평을 할 때에 판사는 두 사람의 계급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을 해야 한다. 당시 오마르는 다른 군인에게 잘못을 했을 경우, 그에게 용서를 빌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곤 하였다.

이처럼 이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해를 입히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통치자라 하더라도 한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슬람에서 주장하는 평등이며, 또한 사람들간의 거래 또는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평등해야 함을 가리키고 있다.

### ⑪ 백성과 지도자간의 차별 없는 평등

역사서인 『...』 : 이야쓰가 그의 아버지에 관해서 전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슬람 지도자 오마르는 시장 거리에서 이야쓰의 아버지에게 조그만 막대기로 대하여 인사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를 나쁜 마음으로 한 행동이 아니고 평범한 행위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곧 나쁜 행위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마르는 곧바로 이야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육백 드르함( 이슬람 국가의 화폐단위) . 그리고 오마르가 말하길, “...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오.” 라고 하자, “...!는 자들의 지도자여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였다. “...!는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슬람은 지도자들이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백성을 통치하도록 교육시켰다. 그리고 결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아랍인과 비아랍인 그리고 피부색

이 다른 인정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모두를 자유로운 상태로 창조하였다.

다른 예로, 오마르와 압바쓰가 땅 소유권에 대하여 의견 대립이 있었다.

압바쓰는 땅을 돌려받고자 했고 오마르는 그 땅으로 마스진( 이슬람 성원)

오마르가 말하길 “ ! 땅을 나에게 파시오.” 그는 그 땅을 마스진으로 남게 하고 싶었다.

압바쓰가 거절하자 오마르가 말하길 “ !러면 그 땅을 나에게 기증하십시오.”

압바쓰가 거절하므로 오마르는 다시 말하길 “ !럼 당신과 나 사이에 사람을 불러 판결을 내리도록 하자.” 그래서 이슬람 학자 우바이 이븐 카압을 불러 왔다.

그리고 오마르가 우바이 이븐 카압에게 설명을 했다. 우바이 이븐 카압이 설명을 듣고 오마르에게 말하길 “ !는 압바쓰가 원할 때까지 그의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없다고 본다.”

오마르가 우바이 이븐 카압에게 말하기를, “ !신의 이런 판결을 하나님의 경전이나 사도님의 행적에서 본 적이 있는가?” 우바이 이븐 카압이 말하길, “ !나님의 사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을 건축할 때 매우 웅장하게 건축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를 내려 다른 사람들의 땅을 침범하여 건축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대들 스스로가 원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오마르가 그 일을 그만두자, 갑바쓰는 스스로 좋은 마음에서 땅을 기증하여 마스진을 넓혔던 것이다. 그래서 오마르는 정의에 복종한 결과가 되었다.

이슬람에서 통치권이나 국가 권력은 통치자나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지도자나 통치자는 하나님의 법을 그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실행하는 것뿐이다. 그것이 바로 이슬람이며 하나님의 율법인 것이다.

오랜 역사동안 무슬림들이 표현해 온 존경, , , 공정 등은 선과 악, , 잘못과 보상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간들이 만들어 낸 표현들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위와 같은 속성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진정한 신의를 지닌 사도들만이 알고 표현했던 것이다.

즉, 각시 말해서 지고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결코 다른 사람보다 높을 수 없으며 더 고귀할 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우월할 수 있는 것은 무슬림들의 평화와 안녕을 추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선한 속성들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슬람은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의 삶의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며 그들의 마음가짐과 인간성의 올바른 승화를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제2 | 이슬람 통치자 오마르는 백성들을 아끼고 약자 편에서 서서 진리를 열망하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했다. 예언자 사후 이슬람은 훌륭한 교육 혜택과 올바른 인도로 인하여 눈부시게 발달하였다. 그 당시에는 지도자들에게 밤낮을 구분 없이 항상 백성들의 안녕을 살피도록 의무화 했다.

오마로의 제자 앓슬람이 말하기를 어느날 밤 나는 오마르와 같이 메디나 밖으로 멀리 나가서 소외된 사람들을 살펴보기 위해 길을 떠났다. 한참 후 우리는 불빛을 발견하였다. , ‘ .’ 라고 외쳤다. 우리는 밤길과 추위로 움츠려 들었다. 우리는 소리를 죽여 가며 조심스럽게 그 곳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한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불 위에는 냄비가 걸쳐져 있었다. 그녀의 아이들은 매우 보채고 있었다. 오마르는 그녀에게 인사하고 “ ?” 라고 묻

자,  
그녀가 “!도 어둡고 추위로 인하여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러면 왜 아이들이 저렇게 울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녀가 말하길 “!가 고퍼서……

그분이 말하시길 “!비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그녀가 말하길 “! 아이 들이 잠을 잘 때까지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그녀는 오마르에 대해 불평스럽게 말하였다.

그분이 그녀에게 말하길 “!나님의 자비가 그대에게 있기를……! 하고 하면서, “!마르는 당신들을 모르느냐?”

그녀가 말하길 “!는 우리를 통치하지만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그분이 나를( ) 부르더니 말하길 “!!” 하고 하였다. 우리는 양곡 창고까지 단숨에 달려가서 밀가루와 고기를 지원 받았다.

그 분이 말하길 “!에게 지어 다오.”

내( ) “!가 지고 가겠습니다.” “!대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도 이 책임을 짊어질 것인가?” . 그래서 그분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녀

에게 가서 그 음식들을 주었으며 밀가루를 집어 들고 그녀에게 말하길 “!.” 하고 하였다.

그분은 불을 붙이고 냄비 밀의 불을 붙기 시작했다. 그가 요리를 하는 동안 그의 수염에서는 김이 났으며 그 장면을 매우 감명적이었다.

그분은 맛있는 음식을 냄비에 담아서 그녀에게 주면서 말하길 “!이들에게 먹이시오.” 하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었다.

그녀가 말하길 “!신들에게 하나님의 보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이 선행은 믿는 자들의 지도자보다 먼저였습니다.”

그분이 말하길 “!약 그대가 믿는 자들의 지도자에게 가면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오.” 하고 하고 그녀가 편히 쉬도록 하였다.

내( ) “!큰 일도 많을 텐데?” 라고 말했을 때 그분은 아이가 기뻐하는 소리를 듣고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잠을 잤고 조용해졌다.

그러자 오마르가 일어나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나를 불러서 말하길 “!실로 굶주림은 그들을 힘들고 슬프게 만든다. 나는 결코 저러한 일을 보지 않을 때까지 이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슬람 역사나 하디스 그리고 사도님 교우들의 생애를 연구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오마르는 모든 이맘들과 지도자들의 모범이 되었다.

이슬람에서 지도자들의 중요한 임무는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다. 밤낮을 구분 없이 백성을 돌봄에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슬람이 사도 무함만을 통하여 가르쳤던 것이 바로 그것이며, 그것을 실천한 것이다.

첫째는 자신을 가르치고 가족을, 그리고 나서 타인을 돌보는 것이다.

하루는 오마르가 메디나 시의에서 백성들을 살피고 돌아오는 길에 한집에서 여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그 집 문 앞에서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오마르는 그에게 인사를 하고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는 시골에서 올라 온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오마르가 물기를 “!러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그 남자는 오마르를 알지 못했다.

그 남자는 말하길 “!안하지만 당신과 관계없는 일에 묻지 마시고 본인의 일에 충실하십시오.” 하고 말하고 문을 닫자 오마르는 무슨 소리인지 알고 싶다고 간청했다. 그

남자는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고 있는 소리라고 말했다.

그래서 오마르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그의 부인 움무 칼썸(리 딸) “!나님께서 인도하신 좋은 일을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자, “?” 라고 물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산모와 아이에게 필요한 천과 다른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그릇에 기름과 씨앗을 담아 그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집에 도착하자 부인에게 말하길 “!모가 있는 데로 들어가시오.” 그리고 오마르는 그 남자와 같이 앉았다.

그리고 불을 피우고 가지고 온 음식을 요리했다. 그 남자는 그때까지도 오마르가 누구인지 몰랐다. 산모가 아이를 낳자 오마르의 부인 안에서 소리를 치기를 “!는 자들의 지도자시요! 남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오마르가 바로 믿는 자들의 지도자인 것을 알게 되었고 송구스러워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하였다.

오마르가 그에게 말하길 “!대로 계시오.” 그리고 나서 그릇을 부인에게 건네주며 산모에게 음식을 먹이도록 했다. 그녀가 음식을 먹자 그 남자에게도 음식을 권했다. “-

식을 드시오. 당신은 꼬박 밤을 새운 것 같구려.”

오마르의 부인 움무 칼쉴이 나오자 오마르가 그 남자에게 말했다. “|일 나는 그대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리다.” 그리고 다음날 그에게 와서 아기에게 자손이 번창 하도록 축복을 내렸다.

만약 누구라도 평등과 진정한 공정성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종교 이슬람에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 | 이슬람 지도자 아부바크르, 2 | 이슬람지도자 오마르, 3 | 이슬람 지도자 오스만, 4 | 이슬람지도자 알리등과 같은 무슬림들의 지도자들에게서 명확히 그 실례를 찾을 수 있다. 4 | 이슬람 지도자인 알리 이후의 지도자들에게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것은 주님의 자비를 찾고 하나님의 종교에 헌신하는 사람 누구에서도 볼 수 있는 모범적인 행동이다.

이슬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 | 이슬람 율법이 공정과 평등을 내세웠는가?” 라는 질문에 간단히 대답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지고하신 하나님이며, 그 분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규정 지으며 그들의 삶의 방법을 그들에

게 가장 잘 맞도록 그들의 필요에 따라 세밀하게 제시해 준 것이다.

진실로 그분에게는 어떠한 것도 감춰질 수 없으며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인간들을 위한 이슬람의 이러한 가르침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이슬람의 교리이며 이슬람을 접하는 사람을 위한 시작이기도 하다.

♠ 하나님 사도들은 왜 일부다처였는가.

일부다처제로부터 얻어지는 교훈, 결혼은 신이 정해주신 것이다. 창조주께서는 피조물들을 남과 여로 구분지어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녀가 만나는 것을 땅위에서 물질적 삶을 영위하는 수단으로 만드셨다. 그러나 몇몇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천성을 거부하였으며 그들 중에서 철학자 마니는 이 세상의 물질적 타락과 악을 줄이기 위하여 독신생활을 주장하였으며 빛이 어둠과 섞이는 것은 사악한 것이니 어둠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혼을 금하고 종족보존을 끊어 빛을 보호하려하였다.

그리고 철학자들 중에는 조건 없이 결혼을 허락하고 권장한 학자들도 있다. 이 주장을 한 대표적인 철

학자는 A.D 487 !에 태어난 무즈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간들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

어떤 자가 다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를 갈망한다면, 샤흐르싸타니가 말하기를, 무즈닥은 그 여자에게 재물을 갖는 것을 허용했으며 사람들이 물과 불과 목초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것처럼 남녀가 서로 협력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기독교 학자들은 올바르게 정당한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결혼 없이 남녀가 만나는 것을 허용했다. 그리고 여자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허용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지고하신 하나님의 법에 명확히 위배되는 것이며 모든 예언자와 사도들을 거부하는 것이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으며 결코 정해진 법칙 없이 혼돈 속에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올바르게 숭고한 법칙을 정해 주셔서 남녀가 모두 똑같이 지켜갈 수 있도록 하셨다.

남녀가 만나는 것 또한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을 준수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허용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도들을 통해서 올바른 결혼을 보여 주었고, 하나님께서 결

혼을 원치 않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만으로 제외한 모든 사도와 예언자들이 결혼을 하였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길에서 선교에 여념이 없었으며 그의 생애 또한 그의 적인 유대인들의 핍박과 억압으로 가득 찼으며 지상에서의 그의 생애 또한 매우 짧아 33 . 예수를 제외한 모든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부인이 한명 이상이었으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르침이었다.

이브라힘께서는 셋 또는 네명의 부인이 있었으며 야곱 또한 네명의 부인과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았다. 그리고 무함만( ) 사도께서도 여러 명의 부인과 결혼하였다. 이와 같이 모든 사도들께서 여러명의 부인과 결혼을 한 것은 인간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일부다처제의 법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또한 선교를 위한 방법이었다. 여기서 나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다.

1) 일부다처제의 허용

2) 일처 다부제의 금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고, 각자의 본분에 맞게 육신을 창조하셔서, 남성을 여성에게 주어 여성은 그것을

받아 임신하게 된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자신이 받은 것을 보존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며, 남성이 여성의 자궁 내에 정액을 주어 정액이 여성의 자궁내에 착상한 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서서히 태아로서의 형태를 갖추어 간다.

만일 한 여자의 자궁 내에 많은 남성들이 정액을 남기게 되면 그들 중 누가 임신을 시켰는지 정확히 규명 지울 수 없게 된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계보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도록 하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을 금하셨다.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거나 행하는 자들은 진실로 동물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 만약 여러 여자의 자궁 속에 한 남자가 씨를 뿌린다면 그의 혈통은 결코 섞이지 않으며, 자식이나 아비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현재의 기독교 사회에서 여자가 정신적인 결혼 전에 많은 남자를 만나는 것을 허용한다. 그것은 임신을 낳고 단지 생각만으로 아이의 아버지를 추측하지만 남자는 받아들일 수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많은 사생아들을 낳게 되고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내려 주셨던 법에 위배된

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내려주신 법은 그분 이외의 모든 사도와 예언자들에게 내려 주신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한 여자에게 많은 남자가 있다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다.

그러면 왜 여자들은 여러 남편들을 만들지 않는데 남자들은 왜 여러 부인들을 만드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남녀가 서로 관계를 갖는 가장 큰 목적은 순결한 상태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명의 부인을 얻는 것을 허용했지 여자 친구들을 갖는 것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생애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무함만 가잘 리가 그의 책 『[무함만 가잘 리의 생애](#)』에서 언급하기를, 사회적 법칙과 경제적 충족은 인간 자신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인식하고 준비를 하였거나 무지하여 소홀히 하였다면 그 결과를 그들에게 바로 나타난다. 그것은 어떤 남자가 여자를 부양하고 사회적 환경이 안전한가?

만약 무지하여 사회가 이를 소홀히 하였다면 여자에게 고통과 불평을 안겨 줄 것이다.

여기서 남녀 숫자의 비율에 주목하자. 남녀의 비율이 같을 수 있고 두 성별 중 한쪽이 많을 수 있다. 만약 똑같거나 또는 여자의 수가 더 적다면 여러 명의 부인을 얻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올바르게 짝지어지도록 두되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몫에 만족하거나 불만을 갖지만 만약 여자의 수가 많다면 다음의 세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1) 그들 중 어느 한쪽 성별의 적당수가 죽을 때까지 결혼을 금지시키거나,

2) 부인 이외의 여자 친구를 만들어 간통을 인정하거나,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종교와 올바른 사회에서 모두 경멸하는 방법이다.

3) 여러 부인을 갖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만약, 여자에게 남자를 금지시킨다면 여자들이 이를 원치 않을 것이며, 정당하지 않은 침대위의 생활도 여자들은 원치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일부다처주의가 현명한 방법이며, 그녀의 아이들을 위하여 올바른 계보를 승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남자들에게 물질적 재산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이는 많은 유산을 상속받고 어떤 이는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

도 있다. 삶의 기본 요소를 많이 상속받은 이와 전혀 그렇지 못한 이의 사이에는 평등이라는 단어는 올바르지 않다.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이 강한 사람에게는 허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부인이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병들고 약하다면 왜 이러한 결점을 남편이 문제 삼지 않겠는가? 그러나 진실로 과거에는 이러한 여인들이 남편의 보호 아래 그대로 있고, 그녀의 곁에 다른 여자가 와서 부인이 의무를 다했다.

하나님께서서는 부인들에게 올바르게 정의롭게 대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온 우주의 주님이시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압둘 와함 자히드 박사

전주 이슬람 성원 이맘

TEL : 063) 243-1483 / 272-8951

018-610-1483



## 압둘 와합 자히드 박사

압둘 와합 자히드 박사는 이슬람 세계에서 매우 유명한 신 학자이십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슬람의 판사인 파지로 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서 물 띠로서 활동하였으며 전주 성원을 운영하면서 전주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태원에 위치한 서울 중앙 성원에 한 달 에 한 번 꾸뜨마(설교)를 정기적으로 해주시며 정기적 활

동으로는 비무슬림들과 새로 입교한 무슬림들에게 전주 성원에서 이슬람과 아랍어 강좌를 들 려주십니다. 그 분은 친절하고 온화하신 성품으로 인해 비무슬림들과 무슬림 모두로부터 사 랑받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분의 노력이 한국에서의 무슬림 움마를 세우 는 기초가 되는데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저자 소개

- 1941년 시리아 알라포 출생
- 알라포 중고 졸업
- 이집트 알아즈하르 대학교 졸업
- 인도 나드와 톨알라마 대학으로부터 이슬람 법학 및 하디쓰 서사 학위 취득
- 알라포 중 고 교사로 10년간 제임
- 아프린 알라포 이슬람 중.고등학교장
- 사우디 아라비아 맥카 알히라 쇠밀라 대학 교수
- 파키스탄 파루끼야 대학 대학원장
- 파키스탄 신드 대학교로부터 박사 학위 취득
-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쿠웨이트 종교성 파견 선교사
- 이슬람 법학 박사

### 저 서

- 꾸란 낭송법에 관한 저서 2권
  1. 알우끄들 자-밀
  2. 알 주-만
- 이슬람의 사회생활 3권
- 제 1대 칼리프 아부 바크르 앓씨디-끄
- 제 2대 칼리프 우마르 알파루끄
- 하디쓰에서의 4대 학자와 사상
- 4법학파의 사상과 교육
- 성 꾸란 집대성의 배경
- 이슬람 경제
- 이슬람법의 근본
- 하나님의 사도 무함판의 생애1
- 하나님의 사도 무함판의 생애2
- 하나님의 사도 무함판의 생애3
- 이슬람의 4대 학자의 생애
- 이슬람의 믿음
- 이의 이슬람 서적 다수 집필



## 한국이슬람 성원안내

### ● 전주성원(JEONJU MASJID)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562-10(561-832)  
전화: (063) 243-1483  
a-zahid@maktoob.com

### ● 서울중앙성원(SEOUL CENTRAL MASJID)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32-21  
전화: (02) 794-7307, 793-6908

### ● 부산성원(BUSAN MASJID)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0-1(609-811)  
전화: (051) 518-9991

### ● 자미아 마스지드 우스만

(DAEAGU JAMIA MASJID USMAN)  
대구 이슬람 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202-6번지  
전화: (053) 523-2171

### ● 광주성원(KWANGJU MASJID)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역리 48-9(464-807)  
전화: (031) 761-3424

### ● 안양성원(ANYANG MASJID)

경기도 안양시 안양5동 618-132(430-828)  
전화: (031) 444-7757

### ● 안산성원(ANSAN MASJID)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41-5(425-845)  
전화: (031) 492-1948

### ● 포천소흘성원(POCHUN SOHEUL MASJID)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소흘7기(430-828)  
전화: (031) 542-4696

### ● 파주성원(PAJU MASJID)

경기도 파주시 원릉면 영태리 421-9(413-813)  
전화: (031) 946-2110

### ● 수원성원(SUWON MASJI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320-15번지  
전화: (031) 295-2956

### ● 제주임시성원

(JEJU ISLAMIC CULTURE CENTER)  
제주시 노형동 939번지 정한오피스텔 1215호(690-802)  
전화: (064) 712-1215

## 이슬람 및 한국 이슬람에 대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quran.or.kr>

<http://www.koreaislam.org>

<http://www.Islamkorea.com>

<http://www.muslimkorea.net>

## 영어로 된 이슬람에 대한 홈페이지 주소 :

<http://islamicity.com>

<http://www.islamworld.net>

<http://www.soundvision.com>

<http://www.talkislam.com>

<http://www.hyahya.org>

<http://www.islamway.net>

<http://www.islam-guide.com>

<http://63.175.194.25>

<http://www.uah.edu/msa/quran.html>

<http://islamicbookstore.com>

<http://www.halalco.com>

<http://www.islamicvoice.com>

<http://www.irf.net/irt/main/htm>